

순천, 주말엔 ‘차없는 거리’… 도심이 문화광장으로

다음달 7~8일 시민로 ‘원즈 순천’… 낭만 캠핑·거리 퍼포먼스 등
6월~12월 매달 한번 연향동 패션의거리 등 권역별 프로그램 다채

순천시가 내달부터 원도심 시민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주말의 광장’을 운영한다.
순천을 대표할 혁신적 문화콘텐츠인 ‘주말의 광장’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통제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도심 차없는 거리로 조성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을 도심으로 끌어

들이기 위한 문화도시 핵심사업이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번 원도심·연향동 패션의거리·해룡면 생태화랑 등 권역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팔마문화제·순천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등 시의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첫 ‘주말의 광장’은 원도심 시민로에서 ‘원즈 순천’과 연계해 내달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도심 속 낭만 캠핑, 친환경 보부상마켓, 다양한 거리 퍼포먼스, 유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캐릭 터 거리 조성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시민로를 채울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행사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세대 간 공감과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족단위 관람객부터 MZ세대까지 문화가 일상이 되는 주말 콘텐츠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에 ‘Good’ 보러 가세~

29일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 ‘굿GOOD보러가자 광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청년 예술인 등 세대 아우르는 무대

회 개최된 바 있다.
광양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지역 무형유산 전승자,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오복춤(한순서류 오복)’으로 문을 열고, 김일구(아쟁,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원장현(대금,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지성자(가야금, 전라북도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이재화(거문고,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보유자), 한세현(피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대취타 이수자), 이태백(장단,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진도씻김굿 이수자) 등 전통예술 명인들이 출연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강민수·채규룡(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사래기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이 선

보이는 단막극 ‘놀부막’이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며, 국수호(승무 이수자) 명인의 금무, 국악밴드 상자투의 퓨전 창작국악, 권원태(남사당놀이 이수자) 명인의 줄타기, 청배연희단의 삼도농악,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소고춤 등이 공연을 풍성하게 채운다.
공연 입장권은 1인당 2매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신청은 백운아트홀 홈페이지(포스코-문화행사-광양-굿보러가자)를 통해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접수한 뒤, 5월 26일 당첨자를 발표 예정이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광양시청 문화예술과(061-797-2732)로 하면 된다.
한편, 본 공연에 앞서 광양노인복지관에서는 소규모 사전 공연이 열리며,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국악의 매력을 보다 가깝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에서 전통예술공연 ‘굿GOOD보러가자 광양’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시작된 옴니버스 형식의 전통예술 지역 순회공연이다. 공연 개최지는 매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121

여수거북선축제, 이순신 전투 재현 ‘감동’

이순신광장 일원 3일간 개최… 22만명 방문 성공 마무리

제59회 여수거북선축제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2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3일부터 3일간 이순신광장과 중앙동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축제는 여수시가 직접 주관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특히 첫째 날과 셋째 날 비가 내린 상황 속에서도 사고·사고 없이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로 운영됐다.
개막공연은 무대 슬라이딩 방식으로 펼쳐진 대

형 거북선의 등장과 해상전투 재현, 공중 불꽃쇼 등 웅장하고 생동감 있는 장면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대로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과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영길놀이는 서교동 로터리부터 중앙동로터리 구간을 따라 독제, 수군출정식, 해상전투, 승전보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인기 역사 감사 최태성의 이순신 장군 특강도 많은 관람객의 주목

을 받았다.
이 밖에 해상전투 멀티미디어쇼, 여수항 뮤지콘서트, 삼도수군 태권무 경연대회, 30여 개의 가족 체험 프로그램, ‘조선수군을 이겨라’, ‘조선수군뎐’ 등 관객 참여형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불법 노점상 문제는 선제적 단속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했으며, 축제장 내 음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진남상이 차 없는 거리에 프리마켓을 조성해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나 여기 있소’, ‘전라좌수군을 찾아라’ 등 상권 연계 행사와 상인들의 자발적인 이벤트로 상가 일대는 연일 활기를 띠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 분청사기 매력에 흠뻑~

분청문화박물관, 한달간 창의체험 운영… 인사이트 투어·페인팅 등

고흥군분청문화박물관이 (사)한국박물관·미술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뮤지엄×즐거다’ 공모에 선정돼, 5월 한 달 동안 창의체험 프로그램 ‘분청사기 크리에이터-이 어은 시간, 이어지는 손길’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분청사기의 미학과 공동체적 의미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분청사기 인사이트 투어 ▲손끝에 담은 우리 이야기-분청사기 아트 페인팅 ▲분청사기 창작스토리텔링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분청사기 인사이트 투어’는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30분간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강사와 함께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분청사기의 역

사, 제작 기법, 공동체 속에서의 쓰임새를 배우는 교육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특히 ‘분청사기 창작스토리텔링’과 연계해서 참여하면 이해도와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손끝에 담은 우리 이야기-분청사기 아트 페인팅’은 15인 이상 단체 예약제로 운영되며, 체험학습실과 한옥다목적체험관 등에서 진행된다. 담방 또는 귀얄 기법으로 만든 초벌 타일에 ‘가족’과 ‘집’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분청사기의 전통 기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이다.
이처럼 전통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http://buncheong.goheung.go.kr) 또는 전화(061-830-5556)로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꽃 보다 도서관’

곡성어린이도서관, 16~26일 문화행사

곡성군이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인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꽃 보다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18일에는 곡성에서 활동하는 김성범 동화작가의 그림책 ‘도깨비와 그림책’ 읽는 법강연과 동요를 스위스 악기로 연주한 ‘동요랑 요들이랑’이 관객 참여형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더불어 17일과 24일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귀염뽀짝 캐릭터 도식라’, 프리저브드플라워를 활용한 만들기 ‘어린이왕자가 사랑한 장미꽃’이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061-363-98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보성 대통합축제 ‘문전성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개막축하 에어쇼를 펼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흥 김’ 인도네시아 입맛 잡으려 간다

60t 100만 달러 규모… 10월까지 780만 달러 수출 예상

고흥군이 지난 2일 마른김 생산업체인 어업회사법인 희망김에서 고흥 김 수출 상차식을 갖고, 인도네시아 수출에 본격 나섰다.
이번 수출은 지난 3월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과 자바수퍼푸드(인도네시아 식품가공 기업) 간 체결한 고흥 김 수출 500만 달러 수출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 5000만원) 규모의 고흥 김 60t이 인도네시아로 수출됐다.
고흥 김을 수입한 자바수퍼푸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를 둔 농수산물 식품가공 기업으로 고흥 김을 활용해 김스낵, 김자반 등을 생산하고 현지 대형 쇼핑몰 등에 납품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 김과 인도네시아 참치에서 추출한 가쓰오부시가 결합한 김자반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은 협약 체결 이후, 고흥 김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자바수퍼푸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이번 물량까지 140t, 270만 달러가 수출됐으며, 올해 10월 말까지는 260t, 510만 달러가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다. 이는 당초 협약 금액인 500만 달러를 초과해, 총 780만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상차식은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을 타겟으로 한 고흥 김의 본격적인 수출 시작을 의미한다”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우리 김의 우수성을 알려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동, 인도까지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고흥 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해외 시장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경찰, 등굣길 학폭 근절 합동캠페인



교육지원청·상담복지센터 등

순천경찰은 7일 순천왕윤초등학교에서 등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딥페이크)·학교폭력 근절 및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은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 아동인권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천대 인권서포터즈, 순천JC, 여성일상지킴이, 왕조·여성 자율방범대, 교사·학생회 등 80여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학

생들을 맞이하며 허위영상물(딥페이크)·학교폭력 근절 및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등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